

시큐어소프트

무선 공인 인증시스템 구축 공급

securesoft

통합보안전문회사 시큐어소프트(대표 김홍선, www.securesoft.com)는 최근 SK텔레콤과 공동으로 개발한 무선 공인인증 시스템을 한국정보인증(대표 강영철, www.signgate.com)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무선 공인인증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사용되고 있는 국가 공인 인증서를 휴대전화를 통하여 신청하고, 이를 이용하여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보장하는 서비스이다.

유선공인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무선공인인증서도 인터넷상에서의 인감 증명서와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선인터넷상에서의 거래 및 결제 시 본인 확인 및 데이터 송수신 보안, 부인방지,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기능을 지원한다.

또한 무선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공인인증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어 휴대전화를 이용한 무선인터넷 거래 및 결제 시, 거래 내용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한국정보인증의 무선공인인증 서비스가 실시되면 소비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잔고조회, 계좌이체 등의 모바일뱅킹 서비스, 주식거래, 각종 대금결제, 문서작성 전달, 전자정부 민원처리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큐어소프트 김홍선 사장은 “이번에 시큐어소프트가 개발 상용화한 무선 공인 인증 솔루션은 본격적인 m-Commerce 시대를 앞당기는데 필수 요소인 무선 보안을 해결하고 있으며, 향후 휴대전화를 이용한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표준 보안 모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라고 밝혔다.

한편, SKT는 무선 공인 인증 서비스 모듈이 탑재된 모토롤라 V.740 단말기를 이미 시중에 출시하였고, 향후 출시되는 모든 모네타 폰에 이번에 개발한 무선 공인 인증 서비스 모듈을 탑재할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정보인증과 SK텔레콤은 무선 공인인증서비스를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 구비 여건을 마련한 상태이며, 양사는 무선공인인증 서비스를 위한 남은 제반적 여건이 종료 되는대로 무선공인인증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전세계 모든 생산법인·판매법인과외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글로벌 거래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WTN (Worldwide Trading Network)’ 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개별 법인의 ERP(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를 인터넷 기반에서 통합함으로써, 삼성전자 전(全)법인간 거래자동화를 구현하고 경영 핵심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번 프로젝트는 2002년도 1월부터 시작, 상반기에는 본사 및 9개 주요 해외법인에 WTN을 성공적으로 구축했고, 2003년도 1월에 56개 해외 전법인에 확산 적용함으로써, 삼성전자는 착수 1년 만에 디지털 경영 관리 체제를 완비하게 됐다.

WTN 구축을 통해 삼성전자는 주문에서 생산까지의 리드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과거 평균 4일 불과 몇 초 이내로)시켜, 연간 1,50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 기반으로 제공되는 전세계 법인간 프로세스 전과정을 신속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법인간의 시스템 표준화를 통해 데이터 오류 및 낭비제거와 수주 정확도를 극대화했다. 물류 대사 통합을 통해 법인간 거래투명성을 확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LG전자(대표 구자홍, www.lge.com)는 광둥성(廣東省) 후이저우(惠州市)시 정부가 매년 1월 31일을 LG의 날로 지정한 것을 기념하는 ‘후이저우 LG의 날’ 문화행사를 지난 28일 개최했다.

후이저우시 문화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LG전자 중국지주회사 노용악(盧庸岳) 부회장, LG전자 DDM사업본부 우남균(禹南均) 사장, 후이저우시 샤오즈형(蕭志恒) 당서기, 리우진조우(柳錦州)시장 등 LG 전자 및 중국 정부관계자, 시민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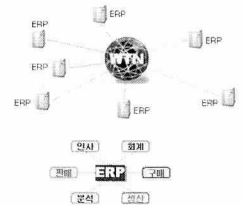
‘후이저우 LG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93년 중국 진출이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샤오즈형 후이저우시 당서기가 ‘LG대도(大道)’ 작명 기증일인 매년 1월 31일을 ‘후이저우 LG의 날’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는데 따른 것으로 이번 행사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현지에서 성대하게 거행됐다.

후이저우시 빈장공원(濱江公園)에서 열린 ‘후이저우 LG의 날’ 전야제에서는 한국, 중국, 대만의 대표 가수들이 참가, 열린음악제가 개최되었으며, 지난 28일에는 후이저우 시민 약 5000명이 참여한 ‘제1회 LG의 날 기념 LG대도(大道) 거북이 마라톤 대회’가 개최됐다.

‘후이저우 LG의 날’ 지정은 선양(瀋陽)시의 ‘LG마을 LG소학교’ 명명

삼성전자

해외 모든 법인 거래자동화 시스템 구축 완료



LG전자

『중국어 ‘LG의 날’ 기념행사 개최』



이병관 박사 3GPP2의 TSG-C 의장 선출

과 함께 중국내 진출한 기업들 가운데 가장 현지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LG 전자 노용악 부회장은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중국인과 중국사회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LG전자는 꾸준한 사회공헌 문화활동 등 현지 밀착 활동을 전개해 상호간의 신뢰와 WIN-WIN의 협력관계로 중국내 가장 사랑받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가 동기식 3세대 이동통신의 국제표준화를 이끌게 되었다.

LG전자 정보통신사업본부 이병관(李炳寬) 박사(부사장급 연구위원)가 지난 주 중국에서 열린 동기식 국제표준화기구(3GPP2)의 CDMA2000 분야를 담당하는 무선기술 규격그룹(TSG-C;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s - CDMA2000) 의장에 선출됐다.

이번에 의장에 선출된 LG전자 이병관 박사는 향후 2년간 CDMA2000 단말기와 네트워크 사이의 국제 표준 규격을 개발하는 그룹 책임자로 활동하게 되며, UMTS/WCDMA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비동기식 진영의 3GPP 등 다른 표준 개발 기구와 상호협력 방안 논의시 3GPP2를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99년에 설립된 3GPP2는 제 3 세대 동기식 시스템 및 CDMA2000 무선접속 기술의 국제 규격 작성을 목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등 각국의 표준개발기구 등에 참여해 무선 접속 기술 성능 향상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 등 응용 기능 네트워크의 완전(All) IP망 진화에 대해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의장 선출로 지난 4년간 LG전자의 동기식 이동통신 분야의 표준 개발 활동이 세계 무선 통신 업계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물론, CDMA 관련 중주국인 한국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

중국 최초 통신서비스 합자 기업 설립



SK 텔레콤(대표 조정남, www.sktelecom.com)은 16일 베이징에서 중국 2위 이동전화사업자이자 CDMA 독점사업자인 차이나 유니콤과 중국 내 무선인터넷 사업을 담당할 합자기업 설립에 관한 총괄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중국의 WTO가입 이후 외국업체로서는 최초로 통신서비스 분야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됐다.

이번 계약을 통해 실무 설립절차에 돌입한 이 합자기업의 지분은 SK 텔레콤이, 중국법률이 부가통신사업에 대해 허용하는 외국인 최대 지분

한도인 49%를, 차이나 유니콤이 51%를 갖게 되며, 향후 양사가 합의할 경우 제3자의 지분참여도 가능하다. 합자기업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은 차이나 유니콤에서 부사장급이 담당하고, 부의사장은 SK텔레콤에서 전무이사급이 담당하기로 했다.

합자기업의 경영관리기구의 구성 및 자본금 규모는 이르면 1월말로 예정돼 있는 합자 및 컨설팅 계약 체결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합자기업은 자체 포털을 구축하고 독자 브랜드로 차이나 유니콤 가입자에게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가입자에 대한 관리, 콘텐츠 소싱 등에 관한 제반 권한을 갖게 된다.

합자기업의 수익원은 차이나 유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s콘텐츠 및 Application 소프트웨어 제공 등 무선인터넷 서비스 수익 s무선인터넷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관련 컨설팅 수익 s신규사업에 따른 부대수익 등이다.

특히 총괄계약서에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보이용료는 다른 업체에 비해 최우대로 분배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우수 무선인터넷 업체들이 합자기업을 통해 보다 나은 조건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련 시장 활성화 및 수익성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SK 텔레콤은 이 합자기업을 통해 세계최고 수준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중인 국내사업모델을 중국시장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해외에서 직접 운영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확보하게 됐다.

SK 텔레콤은 이미 지난해 이스라엘 펠레폰사와 대만 APBW사에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수출하고 자회사인 SK텔레틱이 차이나유니콤에 CDMA 1X 단말기 100만대 공급 계약을 한 데 이어, 직접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운영하게 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수출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차이나유니콤은 CDMA 가입자만 작년 말 7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말에는 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이동전화사업자다.

합자기업 설립에 대한 총괄 계약으로 SK텔레콤은 이동전화 가입자만 2억명이 넘는 중국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동북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무선인터넷 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KT(대표 이용경, www.kt.co.kr)는 초고속인터넷과 무선사업의 호조로 2002년 매출액은 2001년 보다 1.5% 성장한 11조6,943억원, 영업이익은 19.8% 증가한 1조7,427억원, 당기 순이익은 79.4% 증가한 1조9,505억원을 달성했으며, 배당금은 20% 증가한 주당 860원을 지급할

KT

2002년 매출 11조 6,943억
당기순이익 1조 9,505억원 달성



예정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영업이익 개선의 주요요인으로는 초고속인터넷과 같은 성장 사업을 근간으로 한 지속적인 매출성장과 효율적 투자정책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감소 및 이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접속비용이 크게 감소한 때문이라고 KT는 설명했다.

2002년도 매출 구성을 보면 2002년 5월 1일자로 시행된 LM 요금인하 및 무료통화제공으로 LM통화료 수익이 20.6%나 감소하였으나 인터넷수익(메가패스 매출포함)이 31.7% 증가한 2조 4억원, 무선(PCS재판매)수익은 27.8% 증가한 6,625억원, 전화수익은 2.8% 증가한 4조 7,415억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KT는 매출성장의 주요요인으로 인터넷사업에 마케팅역량을 집중하는데 기인했다고 말하고, 특히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는 시장전체의 증가 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무선 통합서비스인 W-LAN 및 VDSL과 같은 다양한 신규 서비스의 보급으로 4분기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간 순증 가입자는 1백만명을 넘어섰으며, 그외 9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모집한 맞춤형 정액요금제로 인해 4분기 시내 시외 통화료가 전분기 대비 각각 월평균 11.2%와 5.2%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민영화 이후 첫해를 맞은 KT는 식스시그마를 통한 경영 혁신을 추진하고 모 자회사간 협력을 통하여 네스팟 등 본격적인 유무선 통합서비스의 추진 및 신규 수익원 발굴을 통해 2003년 매출은 12조 이상, 영업이익률은 18%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주)데이콤(대표 박운서, www.dacom.net)은 최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대표 문병학)와 전산센터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전산센터의 장비와 네트워크를 데이콤을 통해 일괄 관리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통신업체를 통한 전산센터 장비와 네트워크 일괄 관리는 관리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 지점을 쉽게 파악해 신속히 복구할 수 있다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 데이콤 공공금융영업담당 김종천 상무는 “데이콤을 통한 전산센터 관리는 장비는 물론 네트워크까지 일괄 관리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장애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신뢰성이 생명인 금융회사들에게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이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전산센터
유지보수 계약체결

